

# 미적 범주를 적용한 20세기 메이크업 분석

-영화 속 여배우를 중심으로-

정 유 진\* · 정 인 희<sup>+</sup>

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시스템공학부\* · 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시스템공학부 조교수<sup>+</sup>

## Analysis of 20th Century's Makeup according to Aesthetic Categories -Focusing on the Makeup of Film Actresses-

Yoo-Jene Jeong\* · Ihn-Hee Chung<sup>+</sup>

Undergraduate, School of Advanced Materials & Systems Engineering,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Advanced Materials & Systems Engineering,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sup>+</sup>

(2003. 12. 5 투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20th century's makeup according to aesthetic categories. On the basis of aesthetic theories, four category pairs were determined as inter-confronting aesthetic categories: beauty of utility vs. beauty of social aptness: beauty of decoration vs. beauty of construction: sublime vs. grace: classical beauty vs. romantic beauty. 20th century's makeup was analyzed at the interval of 10 years referring to the images of actresses in the films produced in Hollywood and European countries. It was identified that 20th century's makeup had changed from decorative and dramatic makeup to natural makeup as the century proceeded. Consequently, beauty of social aptness, beauty of decoration, sublime, and romantic beauty were emphasized in the early 1900s while beauty of utility, beauty of construction, grace, classical beauty were emphasized in the later 1900s. In the whole 20th century, grace is the most dominant beauty among eight aesthetic categories due to it connote femininity. As the variety of fashion increases, the makeup patterns has become more diversified in recent years.

Key words : aesthetic category(미적 범주), makeup(메이크업), actress(여배우), film(영화),  
20th century(20세기)

## I. 서론

20세기 초부터 기성복이 일반화되면서 여성들은 의복보다 변화가 쉽고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메이크업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현재 패션은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등과 함께 전체적 조화를 중시하는 토탈 패션(total fashion)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sup>1)</sup>, 외관상의 통일미를 이루는 데 있어 특히 메이크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들의 미적 욕구에 따라 자신의 결점을 가려주는 수단으로 출발한 메이크업은 자신을 좀 더 돋보이게 하는 도구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자신의 개성 표현과 유행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라이프스타일이 다변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메이크업(makeup)'이란 어떠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얼굴 메이크업은 본래 타고난 얼굴을 내적 정신과 외적 감각으로 창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메이크업을 한다'는 것은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며, 때로 자신에게는 없는 새로운 것을 첨가함으로써 전혀 다른 자신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다<sup>2)</sup>. 바디 테크닉으로서의 화장은 인격과 지위라는 속성뿐 아니라 (붉은 입술, 확대된 눈, 붉은 뺨과 같은 성적 환기를 유발하는 기표를 사용함에 따라서) 성적 속성을 구성한다. 화장은 사회적 신체 위에 인성(人性)이라는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결과적인 미(美)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선언으로서의 화장의 성과이다<sup>3)</sup>. 이처럼 메이크업이 여성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미적 가치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이크업에 필요한 도구들과 화장품, 그리고 더 아름다워지기 위한 메이크업 테크닉과 같은 실용적 가치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미적 대상으로서의 메이크업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온 측면이 있다.

20세기 예술의 총아인 영화는 도시화, 산업화의 과정에서 빛어낸 가치관의 혼란과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기가 있었고, 대중에게 정서적으로 큰 위안을 주는 한편 한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면서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특히 매스 미디어의 발달에 힘입어 더욱 보편화된 영화는 대중의 공통적인 체험이 되었다<sup>4)</sup>. 20세기에 들어와서 유행은 더 이상 소수계층의 점유물이 아니게 되

었고, 오히려 영화가 유행을 생성하는 중요한 근원이 된다<sup>5)</sup>. 즉, 영화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할리우드에는 스타를 만들어내는 스타시스템이 생겼고, 이에 따라 관객들은 영화배우에게서 영향을 받아 그들의 모습이나 행동을 모방하려 하였다<sup>6)</sup>. 이로 인해 여배우들은 전 세계 여성들의 패션과 메이크업에 영향을 미치며 각 시대의 미를 대표하는 역할모델이 되었으므로, 영화 속 여배우들의 사진은 20세기 메이크업을 분석하기에 좋은 자료라고 판단된다. 메이크업 산업 또한 20세기 초부터 활성화되었으므로 20세기는 메이크업의 미적 범주를 분석하기에 적절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이크업 미학의 연구 및 메이크업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미학 이론에 근거하여 도출한 미적 범주로서 20세기 영화 속 여배우를 중심으로 메이크업의 다양한 미를 분석하여 메이크업의 미적 가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미학 이론에서의 미적 범주 개념을 정리하고, 그 중에서 메이크업의 미를 분석하기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미적 범주를 도출한 다음, 할리우드와 유럽 영화 속 여배우의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20세기 메이크업의 미적 범주를 분석하는 실증적 고찰을 한다. 여배우 사진은 영화관련 서적<sup>7)</sup>과 인터넷 검색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각 시대별 메이크업 특징을 잘 반영하고 비교적 정보가 정확한 것들로 선정하였다. 분석 시기는 190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이고, 시대 구분은 10년을 단위로 하였으나, 20세기 초반은 메이크업 산업과 영화 산업의 초기 단계로 영화 및 메이크업 관련 자료가 많지 않아 1900년대와 1910년대를 묶어 20년을 한 단위로 분석하였다.

## II. 이론적 고찰: 미적 범주

### 1. 미학 이론에서의 미적 범주 개념

'미적 대상'이란 그것이 상상의 것이든 실재의 것이든, 단순히 주어진 바의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감상하게 하는 생생함이나 신랄함을 지니는 어떤 사물이나 성질이다<sup>8)</sup>. 세상의 모든 것들은 미적 가치를

지니는 미적 대상이 된다. 또한 무수히 많은 미적 대상이 존재하듯이 미적 대상에서 느끼는 미의 종류도 다양하다. 미학사를 보면, 어떤 정례적인 분류로 통합되지는 않지만 상당히 다양한 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묘, 우미, 고상미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미를 분류한 결과가 아니며 미의 분류 속에 어떤 정해진 위치가 없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미와 정묘 등과 같은 것들은 미의 종류라기 보다는 미의 변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sup>9)</sup>.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미의 변종들 중에서 '다수의 변종들을 포괄하는 보다 일반적인 것들'을 미적 범주라 한다<sup>10)</sup>. 또한, 미적 범주란 감각적인 미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19세기 전반의 피셔(Vischer)는 그의 주요 저서인 『미학』(1846)에서 숭고한 것과 희극적인 것의 두 가지 범주를 제시하였으며<sup>12)</sup>, 랄로(Lalo)는 『미학』(1925)에서 미적인, 장려한, 우아한, 숭고한, 비극적인, 극적인, 해학적인, 희극적인, 익살스러운 것들의 아홉 가지 범주를 구별했다<sup>13)</sup>. 무어(Moore)는 미와 부분적 조화들, 숭고, 장엄, 예쁘장함, 그림같이 생생함, 기념비적 성격의 여섯 가지의 범주를 구별하였으며<sup>14)</sup>, 타타르키비츠(W. Tatarkiewicz)는 이런 다양한 미적 범주들을 총괄하여 적합성, (구조와 대립되는) 장식, 매력미, 우미, 정묘, 숭고, 고전적인 미, 낭만적인 미를 미적 범주로 제시하였다<sup>15)</sup>.

## 2. 메이크업 분석을 위한 미적 범주

본 연구에서는 메이크업 미를 분석하기 위해 가장 포괄적이고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타타르키비츠의 미적 범주 개념을 토대로, 내용 분석을 통해 미적 범주를 세분화하거나 통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네 개의 미적 범주 쌍을 도출하였다.

### 1) 유용성의 미와 사회적 적합성의 미

고대로부터 미의 변종 중 하나로 간주되어 온 '적합성'은 목적에 알맞음, 또는 어떤 사물에 대한 임무의 충족이라는 뜻을 가진다. 그리스인들은 적합성의 용어로서 프레폰(πρέπο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로마인들은 이 표현을 데코룸(decorum)으로 번역했

다. 후에 라틴어로는 압툼(aptum)이란 용어가 자주 사용되었으며, 17세기 프랑스인들은 비앵세앙스(bien-séance)라 칭했다. 일찍이 고대에 소크라테스는 '그것 자체로 아름다운 것과 목적에 알맞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구별'하면서 미와 적합성을 나란히 놓고 있었으며 르네상스 시대에 알베르티(Alberti)는 '건축물이 아름다운 것은 그 의도된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sup>16)</sup>. 즉,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아름답다고 표현한 부분에서 우리는 적합성이 '미'의 특성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적합성을 미적 범주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밝힐 수 있다. 이때의 적합성은 '유용성'의 의미이며, 유용성은 용도에 맞는 사물의 성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7세기에 들어서 적합성에 대한 용어상의 변화와 더불어 의미상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 때 '적합성'에 대한 관심은 유용성으로부터 벗어나 한 인간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인간의 특질로 모아지게 된다. 즉, 인간은 의도 및 행동거지가 자신의 신분이나 품위에 걸맞을 때 남에게 쾌감을 준다는 것이다. 프랑스 아카데미 사전에서는 비앵세앙스(bien-séance)를 '연령, 성별, 시간, 장소 등의 관계 하에 말하고 행하는 것에 적합함'을 의미한다<sup>17)</sup>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의미에서의 '적합성'으로, 타인과 사회에 관계하여 발생하는 미이며 간단히 '사회적 적합성'이라 한다. 즉, 목적에 맞는 사물의 성질인 유용성이라는 좁은 의미에서 확장된 사회적 적합성은 목적에 맞음으로써 발생시킨 미를 타인에게까지 미치게 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적합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이크업의 미적 범주를 밝히기 위한 분석도구로 적합성을 사용하되, '유용성'과 '사회적 적합성'을 구분하여 메이크업의 미를 분석한다. 메이크업이 피부 보호나 결점 커버와 같은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이성을 유혹하거나 품위를 유지시키고픈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징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 분석틀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2) 장식미(부가된 미)와 구조미(본연의 미)

'장식'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치장함, 또는 그

치장, 걸모양을 아름답게 꾸밈, 꾸밈새나 장식물' 등이다. 중세 이래로 스콜라 철학자들이 장식의 미를 오르나멘툼(ornamentum)과 오르나투스(ornatus)라 칭하고 장식성이라는 의미로 베누스타스(venustus)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장식의 가치는 고유한 명칭을 갖게 된다. 동시에 '어떤 물건이나 조직체 따위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의 서로 짜인 관계나 그 체계'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 '구조'는 포르모시타스(formositas)와 콤포지티오(compositio)라 칭해졌다<sup>18)</sup>. 건축에 있어서 고대와 중세에는 고유한 기능을 하는 구조 외부에 조각적 장식의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구조와 장식이 공존했으며, 르네상스 이래 근대에는 장식적 요소가 점차 중대되었다. 그러나 1800년경 장식을 선호하는 경향은 중단되고, 기능주의가 대두하면서 19세기 말미에는 장식에 반대하는 급격한 변동이 일어났다. 1910년 『건축(Architektur)』에서는 '문화의 발전이란 건축, 가구, 의복 등과 같은 유용한 물체들로부터 장식을 제거하는 것과 동일하다<sup>19)</sup>'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장식은 구조보다 더 선호되기도 하고 구조에 밀려 제거되기도 하면서 미적 범주의 하나로 자리 잡아 왔다. 구조는 '장식되지 않은', '장식이 없는'이란 뜻을 내포함으로써 장식이 제거된 시기에는 구조가 미적 범주의 하나로 장식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보카치오(Boccaccio)는 '시인은 구성하고 장식한다'고 하면서 구성과 장식을 분리시켰으며, 알베르티는 '장식이 미를 보충해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미와 장식을 분명하게 구별지었다. 트리시노(Trissino)의 '미란 이종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 가지는 자연적인 미이며, 또 하나는 부수적인 것이다. 어떤 물체는 자연적인 적합성과 수 및 색의 합치 때문에 아름다운 반면, 또 어떤 것은 거기에 들인 노력 때문에 아름답다<sup>20)</sup>'라는 언급으로부터는 장식이 '부수적인 미'이며 '노력의 미'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조는 '자연적인 미'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식을 '부가된 미'로, 구조를 '본연의 미'로 이해하고 이들 용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것이다.

얼굴 위에 부가적인 외적 장식을 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메이크업은 바로 장식이라 할 수 있다. 이 때의 장식은 메이크업 미를 분석하는 미적 범주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메이크업의 의미를 좀 더 넓게 해석하여 메이크업을 분석하는 미적 범주로 '장식'과 '구조'를 포함할 것이다. 즉, 얼굴 위에 그대로 덮는 화장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기본 화장 위에 덧댄다는 의미, 즉 기본 얼굴 구조 외의 것을 첨가시켰다거나 기본 얼굴 구조에서 더 넓은 범위로 확장시켜 표현한 것을 '장식'으로 간주한다. '구조'는 장식이 없는 메이크업으로서, 장식의 미로 분류되지 않은 것들이 구조미에 포함된다.

### 3) 숭고미와 우미

사전적 의미로 존엄하고 거룩하다는 뜻을 지닌 숭고는 예로부터 웅대하고 고고한 미로 알려져 왔다. 보일로(Boileau)는 '매력있고 즐거움을 주며 황홀하게 만드는 대단한 것, 찬탄할만한 것, 놀랄만한 것'을 숭고한 것으로 보았다<sup>21)</sup>. 18세기에 숭고는 미와 함께 예술에서 가장 주요한 범주로 취급되었고 낭만주의와 더불어 미학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때의 숭고는 침묵, 우울, 공포 등과 같이 매력적이면서도 겁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숭고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했다. 베일리(Baillie)는 숭고의 본질을 크기에서 찾았고, 흄(Hume)은 고고함과 거리에서 찾았으며 지라드(Gerard)는 거대한 차원 및 그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용해오는 것들에서 찾았다<sup>22)</sup>. 19세기에 와서 숭고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미의 한 범주로서 해석되었으며, 『미학 입문』(1876)에서 버크(Burke)와 졸거(Solger), 칸트(Kant)는 '숭고와 미는 상호 배타적이기 때문에 숭고한 것은 아름다울 수 없고 아름다운 것은 숭고할 수 없다<sup>23)</sup>'고 하면서 (협의의) 미와 숭고를 대립시켰다.

우미(優美)는 우아(優雅)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며, 사전적 의미로는 '아름다운 품위와 아담한 정취가 있다'는 뜻이다. 셸링(Schelling)이 우미를 '지고한 부드러움과 모든 힘들의 조정<sup>24)</sup>'이라고 정의했듯이 우미에는 부드럽고 곱다는 의미도 있다. 우미는 그리스어로 카리스(xáρις)이고, 라틴어로는 그라티아(gratia)라고 한다<sup>25)</sup>. 펠리비엔(Félibien)은 '미는 규칙으로써 즐거움을 주고, 우미는 규칙 없이도 즐거움을 준다<sup>26)</sup>'고 하면서 미와 우미를 구별지었다. 타타르키비츠는 미가 '완전성과 규칙성, 법칙성의 미'를

가지며, 이때 미는 고전적인 미와 일치한다고 보았다<sup>27)</sup>. 따라서 우미는 ‘알 수 없는 그 무엇’으로 규칙이 없고 자유스럽다는 점에서 미의 특성과 대립된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우미를 자연스럽게 자유스러운 행동과 외모로 간주하였으며, 로코코 시대에는 그 형식이 작은 것, 여자와 젊은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우미는 경직과 인위성, 준엄함의 반대였고, 숭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함과는 서로 대립되었다. 한편 우미와 관련되는 개념으로 ‘매력미’와 ‘정묘’가 있다. 매력미는 여성적이고 가시적인 미라는 점에서 위엄있고 남성적인 미와 대립되고, 정묘는 섬세하고 작다는 의미에서 거대하고 무한한 것과 대립된다. 따라서 매력미와 정묘는 숭고와 대립되는 범주이며, 그 의미상의 특징들은 우미에 포함된다.

메이크업은 부드러운 곡선과 작고 가늘게 그리는 것으로 우미를 표현하고, 경직된 직선과 크고 두껍게 그리는 것으로 숭고의 미를 표현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력미와 정묘를 묶어 우미에 포함시키고 이 세 가지 미적 범주와 대립되는 숭고를 우미와 함께 메이크업 미적 범주 분석 도구로 사용한다.

4) 고전적인 미와 낭만적인 미

‘고전적(classical)’이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들은 고대로부터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것 역시 다른 범주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의미상의 변화를 겪어왔으며 마침내 여섯 가지 의미로 정리되었다. 그 여섯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8)</sup>.

- ① 시나 예술의 경우 탁월하고 거룩만한 가치가 있으며 널리 인식되어 있다는 의미
- ② ‘고대의’와 같은 의미 (역사적인 의미)
- ③ 고대의 모델을 모방해서 그것과 닮는다는 의미
- ④ 예술과 문학이 의무적인 규칙에 순응하는 것과 같은 의미
- ⑤ 이미 확립된, 표준의, 인정된, 규범적인 등과 같은 의미
- ⑥ 조화, 자제, 균형, 근엄 등의 성질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의미

이처럼 고전적인 미를 정확히 개념짓기는 어려우나, 위에 제시된 의미들을 고려해 보면 고전적인 미

는 시대와 문화에 관계없이 널리 인식된 가장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미라 할 수 있다.

고전적인 미와 의미상 대립되는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낭만적인 미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미와 정의가 존재해 왔다. 타타르키비츠는 낭만적인 미란 ‘강력한 감정과 열정의 미, 상상력의 미, 시적인 것·서정적인 것의 미, 형식이나 규칙에 종속되지 않는 정신적이고 무정형인 미, 이상아름함·무한함·심오함·신비·상징·다양성의 미, 힘·갈등·고통의 미일뿐 아니라 환상·소원함, 그림같이 생생함의 미, 강력한 효과의 미<sup>29)</sup>’라고 정의하였다. 로젠크란츠(Rosenkranz)는 낭만적인 미의 일부인 ‘추’를 느끼게 하는 미적 대상의 형식적 특징이 ‘무형태, 불균제, 부조화의 물형식성’이라고 하였다<sup>30)</sup>.

따라서 메이크업에 있어서 얼굴 전체를 조화롭게 하고, 원래의 얼굴 구조를 표현하는 것에 충실한 메이크업은 고전적인 미로, 원래의 얼굴 구조를 강조하거나 그 영역을 확장시켜 표현하여 자극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느끼게 하는 메이크업은 충격적·비형식적인 낭만적인 미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 4가지 미적 범주 쌍의 미적 특징과 메이크업 분류

미적 범주	미적 특징	메이크업
1	유용성의 미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객관적인 미	피부보호, 결점 커버를 위한 메이크업
	사회적 적합성의 미 상징적 가치를 추구하는 주관적인 미	이성 유희, 품위 유지를 위한 메이크업
2	장식미 (부가된 미) 장식이 부가된 미	기본 화장 위에 첨가, 확장시킨 메이크업
	구조미 (본연의 미) 장식이 없는 그대로의 미	기본 화장의 내추럴 메이크업
3	숭고미 크고 위엄 있는 남성적인 미	직선과 크고 두껍게 표현한 메이크업
	우미 작고 부드러운 여성적인 미	곡선과 작고 가늘게 표현한 메이크업
4	고전적인 미 형식의 미, 규칙적인 배열의 미	얼굴구조에 충실한 조화로운 메이크업
	낭만적인 미 강렬한 감정 표현의 미, 무형식, 불균제, 부조화의 물형식적 미	얼굴구조를 강조하거나 변형시킨 메이크업

<표 1>은 본 연구의 실증적 고찰에서 메이크업 분석에 사용할 네 가지 미적 범주 쌍의 미적 특징을 각각의 메이크업 특징과 함께 요약 정리한 것이다.

### Ⅲ. 실증적 고찰: 미적 범주를 적용한 20세기 메이크업 분석

#### 1. 시대별 분석

##### 1) 1900-1910년대

20세기의 처음 10년이 새로운 과학과 예술로 20세기의 기초를 닦는 시대였다면, 두 번째 10년간은 전쟁과 정치 이데올로기의 시대였다<sup>31)</sup>. 1900년대부터 1910년까지는 상당히 진보적이고 희망적인 시기로 기술의 발달은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sup>32)</sup>. 1914년에서 1918년까지 제1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여성들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의무로 여겨졌으며, 이로 인해 주장과 독립심이 강한 여성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한편, 전쟁으로 인한 남녀 성비의 불균형으로 여성들은 경제적 자립과 성해방 욕구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동시에 결혼을 위해서는 남성을 적극적으로 유혹해야 하는 자가당착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여성들은 금력과 권력을 추구하거나 관능적 쾌락을 찬미하는 사악하고 음탕한 영화 속 요부의 타입을 모방하고자 하였다<sup>33)</sup>.

1차 대전 후 여성들은 직업을 갖고 지위가 향상되면서 여성스러움의 상징이었던 단정하고 자연스러운 전통적 화장법에 반발하기 시작했다. 여성들의 검은 눈, 원색적인 붉은 입술은 새로운 여성미의 상징이 되어 전통을 거부하는 활동적인 여성상, 남성을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도발적 여성상을 표현하였다<sup>34)</sup>. 영화 《클레오파트라(Cleopatra)》에 나온 <그림 1>의 테다 바라(Thea Bara)<sup>35)</sup>는 사악하고 음탕한 요부의 이미지였다. 그녀의 메이크업은 숏으로 그린 것처럼 눈썹이 새까맣고 일자형이며 양쪽이 비대칭으로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눈 가장자리는 검은 색으로 넓게 칠하여 전체적으로 흑과 백의 대비로 강한 인상을 풍기고, 입술은 붉은 색으로 진하게 발랐다. 이러

한 메이크업에는 무성영화 시대에 윤곽을 뚜렷하게 하여 이미지를 전달했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sup>36)</sup>.

검정색은 육감적인 무드와 섹시한 분위기를 연출시키며 빨강색은 도발적이고 유희적인 여성색이다. 테다 바라의 경우 눈 주변에 검게 칠한 아이셰도우와 붉은 입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창백한 얼굴 위에 표현되어 더욱 더 두드러진다. 이러한 메이크업은 남성을 유혹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적합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눈 주변을 검정색으로 넓게 칠한 것은 인위적으로 부가된 외적 장식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장식미'에 가깝고, 검정색이 지나치게 넓게 퍼져있어 매력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게 되는 강력한 작용이 있었으므로 '낭만적인 미'로 분류할 수 있다. 눈썹이 비대칭으로 형식에 무관심하고 부자연스럽다는 점에서도 낭만적인 미를 느낄 수 있으며, 그 형태가 일자형으로 경직되어 있다는 것에서는 위엄과 '송고미'를 느낄 수 있다.



<그림 1> Theda Bara [Cleopatra(1917)]

##### 2) 1920년대

1차 대전 후 활기를 띤 1920년대는 통상 좋은 시대, '재즈와 광란의 시대'로 불렸으며, 이 시기에는 정치, 사회, 문화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라디오가 가정에 보급되고 유성영화가 출현하는 등 새로운 여가 문화도 등장했다. 여성의 사회활동 및 지위 향상, 계몽운동은 전 세계에 걸친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영화 산업의 발전으로 미국의 할리우드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야간의 사교문화는 당시의 경제적인 압박감, 정치적인 불안과 실직의 중압감을 잠시나마 잊게 해 주었다<sup>37)</sup>. 1910년대에 이어 여성들의 메이크업은 계속해서 진해지는 경향을 보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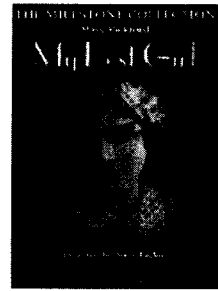
고, 이러한 화장법에 대한 사회적 반발도 커서 1921년 여성 잡지 『우먼스 픽토리얼(Women's Pictorial)』에서는 진한 얼굴 화장을 빗대어 '채색된 말괄량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sup>38)</sup>. 그러나 많은 비판 속에서도 진한 메이크업은 계속되었다.

《날개(Wings)》에 등장한 영화배우 클라라 보우(Clara Bow)<sup>39)</sup> <그림 2>는 이 시대의 자유로운 젊은 여성으로 주목받았으며, 당시 그녀의 모습은 모두가 동경하는 대상이었다<sup>40)</sup>. 그녀는 크고 검게 화장한 계승스레한 눈, 빨간 두 입술로 유명하다. 눈 아래와 눈두덩이에 풀가루를 동그렇게 발라 흑백의 명암차이로 눈매가 뚜렷하고, 눈이 깊어 보이나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다. 눈썹은 눈썹털을 깨끗이 민 후 연필로 가늘고 진하게 그렸는데 일자형에서 약간 둥글게 표현했다. 얼굴에는 파우더를 발라 창백한 느낌으로 표현했으며, 입술은 아주 선명한 빨강색으로, 윗입술은 얇고 작게, 아랫입술은 도톰하게 그렸다. 입술 윤곽선의 끝은 원래 자신의 입술보다 조금 더 늘려서 표현했다<sup>41)</sup>. <그림 3>에 제시한 메리 픽포드(Mary Pickford)<sup>42)</sup>의 메이크업 특징도 이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1920년대의 메이크업은 이전 시대의 '사악하고 음탕한' 이미지 표현에서 1930년대의 '세련되고 우아한' 이미지 표현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메이크업이다. 크고 검게 화장한 눈과 선을 벗어나게 그린 도톰한 아랫입술에서는 '장식미'와 '숭고미'를 느낄 수 있다. 검은 눈과 빨간 입술의 표현은 여전히 자극적이었고 강한 인상을 주었으므로 '낭만적인 미'를 느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진한 메이크업은 야간 사교문화와 쾌락 추구에 영향을 받았으므로 '사회적 적합성의 미'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1920년대의 화장은 눈썹이 정리되면서 가늘어지고 경직된 일자형 눈썹이 좀 더 부드러워졌다. 숭고미와 대립되는 미적 범주인 우미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 시대에는 사회적 적합성의 미를 실현하기 위해 장식미, 숭고미, 낭만적인 미를 여성의 메이크업에 적용시켰으며, 메이크업의 새로운 미적 범주로 우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림 2> Clara Bow  
[Wings(1927)]



<그림 3> Mary Pickford  
[My Best Girl(1927)]

### 3) 1930년대

1929년 10월 뉴욕 증권 시세의 폭락으로 시작된 경제대공황은 1930년대의 사회불안과 정치적 혼란을 가져왔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등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의 반동으로 여러 나라에 확산되었으며, 이탈리아와 파시스트 정권은 경제공황에서 탈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외침략정책을 수립하였고,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sup>43)</sup>.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혼란에 빠진 이 시기에 영화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사람들은 환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영화를 통하여 현실의 고통을 잊고자 했기 때문이다. 1930년대는 1920년대의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여성미'에서 '차분하고 냉철한 여성미'로 대체되는데, 이것은 갑작스런 대공황으로 인해 냉소적이고 절망적인 현실주의가 팽배되면서 책임감 있고 성숙해 보이는 여성의 이미지를 선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sup>44)</sup>.

1930년대의 이상적인 여성상은 차분하고 이지적인 얼굴이며, 화장은 과거보다 더 숙련된 모습이었다. 얼굴 전체에는 파우더션을 발랐고, 입술은 크고 붉게 칠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눈썹은 아주 가늘고 둥글게 그려 세련된 여성미를 표현했다. 《채색된 베일(The Painted Veil)》의 그레타 가르보(Greta Garbo)<sup>45)</sup> <그림 4>와 《드라큘라(Dracula)》의 헬렌 찬들러(Helen Chandler)<sup>46)</sup> <그림 5>, 《진홍의 여왕(The Scarlet Empress)》의 마를레네 디트리히(Marlene Dietrich)<sup>47)</sup> <그림 6>는 당시의 유행을 영화 속에서 잘 그려내고 있다. 특히 영화 《진홍의 여왕》에서는 독일의 공주 소피아가 대권싸움에서 승

리하여 통치자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후세에 예카테리나 2세로 불리게 되는데, 이러한 배역이 마블레네 디트리히의 메이크업을 책임감 있고 성숙하며 차분한 스타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메이크업 특징은 아름다운 눈매와 신비로운 미소이다. 얼굴의 입체감을 두드러지게 하였고, 아이홀 전체에서 눈썹 부분까지를 옅은 핑크색으로 넓게 퍼 발라 매우 부드럽게 표현하였다. 검정색으로 아이홀 음영에 깊이를 주었으며, 회색 아이쉐도우와 긴 속눈썹을 붙여 신비함을 풍겼다<sup>48)</sup>. 이 시대에는 볼터치가 유행하였는데 갈색과 옅은 핑크색을 섞은 듯한 색으로 칠해졌으며,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피부도 붉은 핑크빛이 돌도록 하였다. 입술은 둥글고 정확하게 그려졌다.

1930년대에는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여성으로 보이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으로 인해 자극적이고 진한 화장으로부터 차분하고 우아하며 세련된 화장으로 바뀌었다. 얼굴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강조된 아이홀과 볼터치, 그리고 인위적으로 붙여진 속눈썹에서 '장식미'를 느낄 수 있으며, 아주 가늘고 둥글게 그려진 눈썹과 선이 정확하고 둥글게 그려진 입술에서 강한 '우미'를 느낄 수 있다. 부드럽고 조화로우며 강조한 메이크업에서는 '고전적인 미'를 느낄 수 있다. 이전시대에 강조되어왔던 낭만적인 미와 숭고미는 우미의 등장으로 쇠퇴하였으며, 우미와 고전적인 미를 메이크업의 새로운 미적 범주로 부각시켰다. 전반적으로 1930년대 메이크업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용성의 미보다는 '사회적 적합성'의 미를 중시하였고, 여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한 우미와 장식미, 고전적인 미가 나타났다.

#### 4) 1940년대

1940년대는 '열전' 속에서 시작되어 '냉전'과 더불어 막을 내렸다. 1939년에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은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끝이 났고, 이후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이 국제정치를 주도함으로써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1946년 영국의 치칠 총리가 소련과 동유럽을 '철의 장막'으로 비판한 뒤 세계는 급격히 체제 대립에 들어갔다<sup>49)</sup>. 이로써 냉전이 시작되고, 그 결과물로 서방의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이에 맞선 소련 중심의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 1945년 유엔이 탄생함으로써 세계는 인류 평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6년간의 제2차 세계대전은 제1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높여주었으며, 메이크업도 1930년대에 비해서 실용적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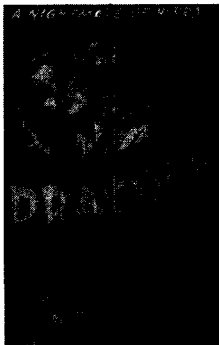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더욱 높아짐으로 인해 여성들은 생기 있고 강인한 모습의 이미지를 추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화장법도 바뀌었다. 이 시기의 유행 메이크업을 보여 준 여배우는 <그림 7>의 잉그리드 버그만(Ingrid Bergman)<sup>50)</sup>으로, 그녀는 1942년 <<카사블랑카(Casablanca)>>와 1943년 <<누구를 위

하여 좋은 울리나(For Whom the Bell Tolls)>>에서 자연스러운 소년풍의 내추럴 메이크업을 선보였다<sup>51)</sup>. 그녀의 눈썹은 진하고 뚜렷했고, 눈은 색조화장 없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표현했으며, 입술은 더 이상 예전처럼 강조하지 않았다. 1940년 영화 <<애수(Waterloo Bridge)>>에서 발레단의 무희 역을 맡은 <그림 8>의 비비안 리(Vivien Leigh)<sup>52)</sup>의 메이크업도 이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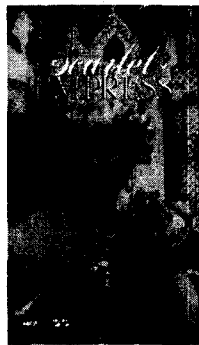
1930년대와 달리 1940년대에는 우미가 사라지고 숭고미가 다시 나타나게 된다. 우아함과 세련미를 표현했던 가늘고 등



<그림 4> Greta Garbo  
[The Painted Veil  
(1934)]



<그림 5> Helen  
Chandler  
[Dracula(1931)]



<그림 6> Marlene  
Dietrich [The Scarlet  
Empress(1934)]





<그림 7> Ingrid Bergman  
[Casablanca(1942)]



<그림 8> Vivien Leigh  
[Waterloo Bridge(1940)]

근 눈썹은 강한 여성상을 표현하기 위해 다시 두껍게 그려졌다. 입술도 넓게 그려졌는데 예전처럼 강조된 것은 아니었다. 여성들은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단순하고 실용적인 메이크업이 필요했으며, 있는 그대로의 얼굴에 색조화장은 거의 하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유지시켰다. 따라서 1940년대의 메이크업은 실용성을 강조한 '유용성'의 미를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강인함을 느끼게 하는 '송고미'와 장식되지 않은 '구조미', 단순함에서 오는 '고전적인 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1950년대

제 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면서 문화의 중심지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바뀌어갔다. 전후 재건은 무역과 산업의 확장과 발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서서히 개선되어 갔다. 이 시기는 문명 개발의 시기로 이때부터 영화와 TV, 카메라 등에 컬러가 등장했다. '색(色)'이 부각되면서 메이크업에서도 컬러 표현이 증가했으며 더 성숙한 메이크업으로 발전했다.

이 시기에는 인위적인 메이크업이 유행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화장이 진했다. 얼굴 전체에는 복숭아 빛 파운데이션을 발라 밝은 피부를 연출하고, 눈썹은 두껍고 진하게 그렸으며, 아이라이너를 사용하여 눈매를 강조하였다. 아이홀에는 살구빛, 살색을 바르고 안쪽 하이라이트 부분은 더욱 밝은 색을 발라 눈의 입체감을 부드럽게 표현했다<sup>53)</sup>. 눈썹산은 각이 생기게 했고, 눈 끝은 치켜 올렸다. 입술에는 붉은 색 립

스틱을 발랐으며 얼굴의 윤곽선을 살리는데 힘썼다. 세련미와 우아함, 그리고 성적 매력을 과시하는 메이크업이 유행했으며, 영화 《로마의 휴일(Roman Holiday)》에서 공주 역을 맡은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n)<sup>54)</sup> <그림 9>과 영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Gentlemen Prefer Blondes)》에서 사교클럽의 가수 배역을 맡은 마릴린 몬로(Marilyn Monroe)<sup>55)</sup> <그림 10>는 이 시대의 메이크업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여배우들이다. 마릴린 몬로는 얼굴에 점을 찍는 것을 유행시켰다. 또한 그레이스 켈리(Grace Kelly)<sup>56)</sup> <그림 11>의 짙은 눈썹과

속눈썹으로 인해 강조된 눈, 붉은 입술은 이 시대의 메이크업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1950년대의 메이크업은 화장이 진하고 인위적인 장식을 사용하였으므로 '장식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얼굴에는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눈썹은 두껍고 진하게 그렸으며, 아이라이너를 사용하여 눈매를 강조하였다. 또 인조 속눈썹을 붙이고, 얼굴에 점을 찍기도 하였다. 진하고 두꺼운 눈썹에서 송고미를 느낄 수도 있으나 1940년대에 여성의 강인함을 표현했던 것과는 달리 1950년대에는 오히려 세련되고 우아한 여성미를 표현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므로 송고미가 표현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오히려 1950년대 메이크업에서는 송고미가 장식미의 일부로 포함되면서 그것이 여성적인 아름다움으로 승화되어 '우미'를 탄생시켰다고 보는 것이 옳다.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조화되기보다는 눈을 강조하여 여성의 매력을 창출하였고, 추의 의미에서 숨겨왔던 점을 강하게 드러내어 성적 매력과 연관시킴으로써 자극적인 효과를 주었다는 점에서 '낭만적인 미'가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대의 메이크업은 우아함과 세련미로 여성의 품위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이성을 유혹하는 성적 매력을 풍기는데 보조적 역할을 하였으므로 '사회적 적합성'의 미에 해당한다.

### 6) 1960년대

1960년대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베이비 붐 세대가 청소년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에 의해 패션이 선



<그림 9> Audrey Hepburn  
[Roman Holiday(1953)]



<그림 10> Marilyn Monroe  
[Gentlemen Prefer Blondes(1953)]



<그림 11> Grace Kelly  
[Rear Window(1954)]

도되었다. 이 시기에는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이 여유로워짐에 따라 삶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생활 패턴이 다양해지면서 패션도 점차 다양해졌다. 반전운동의 영향으로 평화를 바라는 분위기는 자연주의로의 회귀를 추구하는 히피족을 탄생시키기도 했다<sup>57)</sup>. 각종 인조섬유의 출현, 영상매체의 발달, 우주 왕복선 아폴로호의 발사 등 과학의 발전도 눈부셨다.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약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여성들의 존재의식이 높아지고 차별에 대한 논쟁도 일어났다.

1960년대의 화장은 1950년대의 인위적인 화장을 모방하되 좀 더 부드러워졌다. 영화 《사랑과 경멸(Le Mépris)》에 출연한 큰 눈과 금발머리의 브리짓 바르도(Brigitte Bardot)<sup>58)</sup> <그림 12>는 이 시대 젊은 여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영화배우이다. 여성들은 브리짓 바르도와 같이 크고 아름다운 눈을 표현하기 위한 메이크업 테크닉을 널리 확산시켰고, 메이크업 포인트는 눈에 집중되었다<sup>59)</sup>. 아이라이너로 눈꼬리를 올려서 그런 다음 속눈썹을 붙이고 마스카라를 했다. 아이췌도우는 쌍꺼풀 주변에만 발랐고 색상은 옅은 옥색, 푸른색, 갈색, 회색 등의 차분하면서도 신비한 색을 사용하였다. 볼터치는 옅은 핑크색으로 볼뼈를 중심으로 칠해졌으며, 입술은 옅은 갈색과 핑크로 칠하거나 투명하게 표현되었다. 필을 사용하고 윤곽선을 뚜렷이 그려줌으로써 육감적인 느낌이 들게 했다. 1962년 영화 《표범(II Gattopardo)》에서 귀족계급의 영주와 결혼하게 되는 부유한 시민계급의 여성인 안젤리카 역을 맡은 <그림 13>의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Claudia Cardinale)<sup>60)</sup>의 메이크



<그림 12> Brigitte Bardot  
[Le Mépris(1963)]



<그림 13> Claudia Cardinale  
[II Gattopardo(1962)]

업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1960년대에도 아이라이너를 사용하여 눈매를 그리고, 인조속눈썹과 마스카라를 사용하며 입술에 필을 바르는 등 여전히 장식적인 요소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전시대와 마찬가지로 ‘낭만적인 미’와 ‘장식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50년대의 강조된 눈썹과는 달리 1960년대는 그 형태가 부드러워지고 다소 가늘어졌다. 아이 췌도우를 바르는 면적도 쌍꺼풀 주변으로 좁아졌고, 차분한 색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발랐다. 숭고미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여성적 매력을 증가시키는 ‘우미’가 강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50년대와 마찬가지로 실용적이기보다는 상징적인 메이크업을 하여 ‘사회적 적합성’의 미를 더 추구하였다. 따라서 1960년대는 1950년대와 비슷한 메이크업 미를 유지하되, 장식미보다 우미가 더 우세한 경향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7) 1970년대

1970년대는 불경기, 오일쇼크, 달러 쇼크, 인플레이션 등 전 세계적으로 불황을 겪었던 어려운 시기였다<sup>61)</sup>. 따라서 소비자들은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생활을 추구하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영국과 미국에서는 실업률이 증가하였으나, 세계의 경제는 안정을 되찾았고 생활수준은 향상되었다<sup>62)</sup>. 1960년대에 청소년이었던 베이비붐 세대들은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가지게 되면서 보수적인 스타일을 추구하였다. 또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을 표출하여 그것이 펑크스타일의 독특한 문화양식으로 탄생하기도 했다.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반전운동이 일어났으며 여성해방운동이 활발하여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고 사회적 참여도 높아졌다.

1970년대의 젊은층은 보수적인 스타일을 추구함으로써 메이크업도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었다. 아이라인은 아이췌도우와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표현되었고 눈썹은 뽑아서 정리하고 아이홀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사회 환경에서는 펑크스타일이 유행하면서 과격적인 메이크업이 선보이기도 했다. 펑크 메이크업은 잘 정돈되고 인위적으로 다듬어진 것을 부정하여 기존의 정형화된 화장법을 거부했다<sup>63)</sup>. 얼굴전체는 창백하게 메이크업하고, 눈 주변은 검정과 흰색 아이췌도우를 대비시키거나, 화려한 색을 사용하여 기하학적 형태로 그리기도 했다. 볼터치는 검정, 노랑, 흰색 등을 사용함으로써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입술에는 무광택의 검정과 갈색, 와인색을 발랐으며 같은 색으로 윤곽선을 살렸다. 1970년대에는 《람보(First Blood)》나 《디어헌터(The Deer Hunter)》와 같이 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가 많이 나왔던 시기이며, 1978년 《디어헌터》에서 결혼을 약속한 남자를 전쟁터에서 잃게 되는 린다 역의 메릴 스트립(Meryl Streep)<sup>64)</sup><그림 14>은 1970년대의 메이크업 유행 경향을 잘 보여준다. 1972년 영화 《러

브스토리(Love Story)》에서 가난하지만 똑똑하고 당찬 제니 역을 맡은 알리 맥그로우(Ali MacGraw)<sup>65)</sup><그림 15>는 검은 피부와 짙은 눈썹으로 그녀 특유의 매력을 발산하였다. 영화 《그리스(Grease)》에서 여고생 샌디 올슨 역을 맡은 올리비아 뉴튼 존(Olivia Newton-John)<sup>66)</sup><그림 16>의 메이크업 역시 그녀 자신의 피부톤을 살리면서 내추럴 메이크업의 경향을 보였다.

눈을 강조했던 1960년대와는 달리 1970년대에는 전체적인 조화를 중시하면서 낭만적인 미에서 '고전적인 미'로 서서히 옮겨가게 된다. 인위적으로 붙였던 속눈썹이 없어지고 눈썹은 뽑아서 정리만 하는 등 부가적인 장식 요소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구조미'를 추구하게 되었고, 아이라인과 아이췌도우를 섞어 부드럽게 표현하는 등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여전히 지속시키면서 '우미'를 유지했다. 메이크업이 점차 실용적 목적으로 행해지면서 사회적 적합성의 미보다는 '유용성'의 미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나타난 펑크스타일은 1970년대 메이크업과 정반대의 미를 추구했다. 그것은 '추'에 가까웠고 따라서 추의 미를 포괄하는 '낭만적인 미'로써 기존의 미를 거부했다. 그러나 펑크스타일은 청소년 하위문화 집단에서 출현한 하나의 문화양상으로 1970년대 메이크업을 특징짓는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부수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8) 1980년대

1980년대는 소련의 개방정책으로 국제 냉전체제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진



<그림 14> Meryl Streep [The Deer Hunter(1978)]



<그림 15> Ali MacGraw [Love Story(1972)]



<그림 16> Olivia Newton-John [Grease(1978)]

세계적으로 고성장을 이룩한 시기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그동안 고정되었던 사고들이 해체되거나 서로 절충되면서 문화 예술적으로 새로운 해석들이 등장했다. 그 영향으로 패션분야에서도 다양화가 가속화되었고, 유니섹스 모드가 출현하면서 개성을 중요시하는 현상이 확산되었다. 또한 일반 대중들도 다양한 스포츠와 레저 활동을 즐기는 등 생활 전반에서 자유로움과 여유를 즐기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와서는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런 경향은 패션에까지 미치게 되는데, 1989년의 섬유 전시회에서는 '녹색으로 가자(Going green)'라는 주제로 유행 경향을 제시하기도 했다<sup>67)</sup>.

1977년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Saturday Night Fever)》는 세계를 디스코 열풍에 휩쓸리게 만들었으며, 영화 《문스트럭(Moonstruck)》에 출연한 셰어(Cher)<sup>68)</sup> <그림 17>의 모습은 1970년대 후반에 유행한 핑크스타일과 화려한 메이크업을 보여준다. 1980년 중반과 후반에는 오존층 파괴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사람들은 피부보호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부드럽고 여성스러움이 강조된 내추럴 메이크업이 유행하게 되면서 눈썹은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연한 갈색이나 핑크색 등의 아이섀도우를 사용했다. 프랑스 영화 《라봄(La Boum)》에서 아이돌 스타로 급부상한 <그림 18>의 소피 마르소(Sophie Marceau)<sup>69)</sup>와 1989년 영화 《해리가 샬리를 만났을 때(When Harry Met Sally)》에서 샬리 역을 맡은 <그림 19>의 맥 라이언(Meg Ryan)<sup>70)</sup>의 자연스럽게 신선한 이미지가 1980년대 메이크업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경제적으로 성장한 1980년대 초반은 1970년대 후반의 핑크스타일과 디스코 열풍에 영향을 받으면서 메이크업이 다소 화려해졌으나, 눈두덩이에 펄을 바르고 입술을 진하게 한 것이 화려함의 전부일 뿐 다른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1980년

대 중반에 여성들이 색조화장보다는 피부보호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에서의 관심은 장식성보다는 기능성 쪽으로 흘러갔고, 내추럴한 메이크업이 유행했다. 이러한 점에서 1980년대는 '유흥성'의 미를 가장 중요시했으며, 장식이 없는 '구조미'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연한 색상의 아이섀도우를 사용하고 자연스럽게 정리한 눈썹에서는 '고전적인 미'를 느낄 수 있으며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내추럴 메이크업은 '우미'를 대표한다. 따라서 1980년대 메이크업의 큰 흐름은 1970년대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내추럴 메이크업의 미적 범주로서 유흥성, 고전적인 미, 구조미, 우미가 그 위치를 더욱 더 확고히 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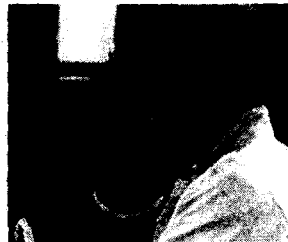
### 9) 1990년대

1990년대는 20세기의 '세기 말'로서 과거의 회고와 반성, 이 시기에 새 천년을 맞이하는 설렘과 두려움으로 전 세계가 술렁거렸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세계가 글로벌화되었고, 세계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패션의 변화도 빨라졌다. 또한 소비 패턴이 고급화되면서 여성들은 미용성 뿐만 아니라 기능성을 갖춘 화장품을 선호하게 되었고, 자연적인 멋을 추구하는 에콜로지풍이 유행하게 되면서 메이크업의 색상으로는 나무와 땅의 상징인 초록색과 갈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즉,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촌의 위기감은 리사이클과 내추럴리즘을 강조하여 패션의 색상, 소재, 스타일 등에 영향을 준 것이다<sup>71)</sup>.

1980년대의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이어져 오면서 1990년대에는 맑고 투명한 이미지가 더 부각되었



<그림 17> Cher  
[Moonstruck(1987)]



<그림 18> Sophie Marceau  
[La Boum 2(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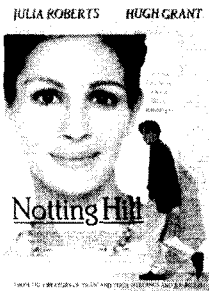
<그림 19> Meg Ryan  
[When Harry Met Sally(1989)]



<그림 20> Demi Moore  
[Ghost(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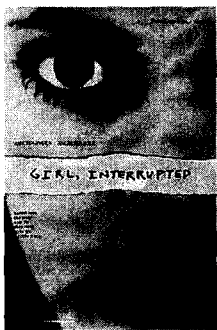
<그림 21> Reese Witherspoon  
[Cruel Intentions(1999)]



<그림 22> Julia Roberts  
[Notting Hill(1999)]



<그림 23> Gwyneth Paltrow  
[Great Expectations(1998)]



<그림 24> Winona Ryder  
[Girl, Interrupted(1999)]



<그림 25> Winona Ryder  
[Dracula(1992)]

다. 주근깨나 점이 바탕 화장에 비쳐 보일 만큼 투명한 메이크업으로 눈에는 스킨베이스나 초록색, 갈색 등의 색을 연하게 발랐다. 입술은 립스틱을 발랐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원래의 입술색을 살려 얇게 발라주었다. 영화 《사랑과 영혼(Ghost)》으로 유명한 데미 무어(Demi Moore)<sup>72)</sup> <그림 20>와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Cruel Intentions)》에서 순진한 아네트 하그로브 역의 리즈 위더스푼(Reese Witherspoon)<sup>73)</sup> <그림 21>의 메이크업은 이러한 메이크업

특징을 잘 반영해준다. 그 외에 《노팅힐(Notting Hill)》에서 유명한 인기영화배우 역을 맡은 <그림 22>의 줄리아 로버츠(Julia Roberts)<sup>74)</sup>와 《위대한 유산(Great Expectations)》의 기네스 펠트로우(Gwyneth Paltrow)<sup>75)</sup> <그림 23> 역시 내추럴 메이크업을 보여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신 복고 경향이 유행하게 되는데 영화 《처음 만나는 자유(Girl, Interrupted)》와 《드라큘라(Dracula)》에 출연한 <그림 24>와 <그림 25>의 여배우 위노나 라이더(Winona Ryder)<sup>76)</sup>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녀는 전체적으로 진한 화장을 하여 검정색 펜슬로 눈썹과 아이라인을 짙게 그리고, 인조 속눈썹을 붙였다. 얼굴은 전체적으로 창백했으며, 입술은 빨간색으로 칠했다.

이 시기에는 자외선 차단뿐 아니라 미백 기능, 주름개선 등의 다양한 기능성 제품이 널리 사용되면서 여성들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1990년대에는 자연스럽고 가벼운 화장을 했으며, 이 시대 메이크업의 미적 범주는 유용성, 고전적인 미, 구조미, 우미로 1980년대와 동일하다. 내추럴 메이크업이 유행하는 가운데 신복고 패션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 하위문화적 메이크업의 특징은 1920년대와 1950년대 메이크업과 유사하며 내추럴 메이크업과 반대되는 메이크업 미적 범주를 가진다.

## 2. 20세기 메이크업 동향

20세기를 10년 단위로 나누어 각 시대의 메이크업을 미적 범주로 분석해 본 결과 20세기의 메이크업 특징은 미적 범주별로 <표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었다. 유용성의 미는 피부보호에 관심을 두고 기능성을 추구하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메이크업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적합성의 미는 메이크업이 성적 매력을 풍기거나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때 나타났다. 장식미는 얼굴의 한 부위를 강조하거나 인조물을 부착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구조미는 가볍고 투명하며 내추럴한 메이크업에서 나타났다. 숭고미는 밝고 진하고 두꺼운 선으로 표현되고 있었으며, 우미는 가늘고 정교하고 부드러운 메이크업으로 나타났다. 고전적인 미는 조화로운 메이크업으로, 낭만적인 미는 비대칭적이고 부자연스러

은 메이크업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한편, 20세기 메이크업 미적 범주의 변화 동향은 <표 3>과 같이 정리된다. 20세기 동안 네 개의 대립되는 미적 범주 쌍의 모든 미적 범주들이 출현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여덟 개의 미적 범주는 20세기 메이크업을 분석하는 데 적절한 도구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미적 범주 쌍에서는 두 개의 미적 범주가 교대로 나타나고 사라지는 패턴을 보여줌으로써, 메이크업 역시 의복 패션과 마찬가지로 주기성을 가짐을 고찰할 수 있다. 다른 미적 범주 쌍에서는 두 개의 미적 범주가 비슷한 출현율을 보였으나, 숭고미와 우미의 미적 범주 쌍에 있어서는 우미의 출현기간이 길어 메이크업에서 우미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메이크업이라는 행위 자체가 남성적이기보다는 여성적인 속성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메이크업은 여성적 속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방편인 것이다.

20세기가 시작된 1900년대와 20세기가 끝나는 1990년대의 메이크업 미적 범주를 보면 표현되고 있

는 미적 범주가 네 개의 쌍 모두에서 서로 대립되고 있다. 즉, 사회적 적합성의 미, 장식미, 숭고미, 낭만적인 미를 추구하던 20세기 초의 메이크업은 20세기가 끝날 즈음엔 유용성의 미, 구조미, 우미, 고전적인 미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는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 것으로, 20세기 초의 불안정하던 시대적 분위기가 20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점차 안정되고 풍요로워짐에 따라 메이크업 역시 합목적적이고 본연의 기능을 하며 고전적이고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연주의 경향을 띤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1970년대부터는 사회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내추럴 메이크업 중심의 동일한 미적 범주들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양’보다 ‘질’을 선호하게 되었고, 여성들은 화장을 많이 하여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보다 원래의 피부를 건강하고 젊게 유지시킴으로써 아름다움을 오래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메이크업은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한 이은영<sup>77)</sup>에 따르면 신체장식(상혼, 문신, 체

<표 2> 미적 범주에 따른 메이크업 특징

		그 밖의 특징	
1	유용성의 미	· 옅고 차분한 색의 아이셰도우 사용 · 눈썹은 자연스럽게 정리	· 본래의 입술 색을 살려서 바름 · 미백 기능, 주름 개선에 노력을 기울임
	사회적 적합성의 미	· 눈 주변에 검게 칠한 아이셰도우 · 아이라이너 사용 눈매 강조	· 붉고 진한 입술 · 남성을 유혹, 쾌락추구, 자신의 이미지 표현, 품위 향상, 성적 매력을 풍김
2	장식미 (부가된 미)	· 눈 주변으로 넓게 칠을 함 · 크고 검게 화장한 눈 · 인위적으로 붙여진 속눈썹, 눈썹이 진함	· 선을 벗어나게 그린 도톰한 아랫입술 · 점을 그림 · 볼터치를 함 · 필을 사용
	구조미 (본연의 미)	· 눈썹은 뽑아서 정리만 함	· 본래의 입술 색을 살려 얇게 바름 · 가볍고 투명한 내추럴 메이크업
3	우미	· 눈썹이 정리되고 가늘어짐 · 눈썹을 아주 가늘고 둥글게 그림 · 아이라인과 아이셰도우를 섞어 부드럽게 표현	· 입술을 작고 가늘게 그림 · 입술을 둥글고 정확하게 그림 · 꼼꼼하고 정교한 메이크업
	숭고미	· 눈썹이 일자형으로 경직됨 · 눈썹을 진하고 두껍게 그림 · 크고 검게 화장한 눈	· 선을 벗어나게 그린 도톰한 아랫입술 · 넓게 그린 입술 · 강인하고 남성적인 메이크업
4	고전적인 미	· 연한 갈색이나 핑크색의 아이셰도우 사용	· 입술 선을 정확히 그림 · 조화로운 메이크업
	낭만적인 미	· 부자연스럽고 비대칭적인 눈썹 · 검게 칠한 눈, 아이라이너 사용 눈매 강조	· 빨간 입술 · 입술 선을 벗어나게 그림 · 얼굴 위에 화려한 색을 사용하여 기하학적 형태로 그림

색, 제거, 변형)은 문화가 발달됨에 따라 자연 상태의 신체를 보다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한다. 즉 자연의 형태를 파괴하는 것보다는 자연의 형태를 보존하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다는 것이다. 메이크업의 유행 경향이 20세기 전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자연스러워진다는 본 연구 결과는 메이크업이 신체장식의 일부로서 본연의 얼굴을 보다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온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미, 낭만적인 미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1930년대는 사회적 적합성의 미, 장식미, 우미, 고전적인 미가 나타났다. 1940년대는 유용성의 미, 구조미, 숭고미, 고전적인 미가 나타났으며,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사회적 적합성의 미, 장식미, 우미, 낭만적인 미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1970년대와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에는 유용성의 미, 구조미, 우미, 고전적인 미로 나타났다.

<표 3> 20세기 시대별 메이크업 미적 범주 분석

시대 분류	메이크업에 적용된 미적 범주들			
1900-1910년대		장식미	숭고미	낭만적인 미
1920년대		장식미	숭고미	낭만적인 미
1930년대		장식미	우미	고전적인 미
1940년대	유용성의 미	구조미	숭고미	고전적인 미
1950년대		장식미	우미	낭만적인 미
1960년대		장식미	우미	낭만적인 미
1970년대	유용성의 미	구조미	우미	고전적인 미
1980년대	유용성의 미	구조미	우미	고전적인 미
1990년대	유용성의 미	구조미	우미	고전적인 미

#### IV. 결론

메이크업은 의복 및 헤어스타일과 더불어 여성들의 패션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서 여성들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메이크업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메이크업에 필요한 도구들과 화장품, 메이크업 테크닉 등과 같은 실용적 가치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미적 대상으로서의 메이크업 연구는 소홀히 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메이크업의 미적 가치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20세기의 메이크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자료로는 할리우드와 유럽 영화 속 여배우들의 메이크업 사진을 이용하였으며, 메이크업 미를 분석하기 위한 객관적인 도구로서 미학 이론의 '미적 범주'를 채택하였다.

유용성의 미와 사회적 적합성의 미, 장식미와 구조미, 숭고미와 우미, 고전적인 미와 낭만적인 미의 네 가지 대립되는 미적 범주 쌍을 도출하여 20세기 각 시대별 메이크업 미를 분석한 결과, 1900-1910년대와 1920년대는 사회적 적합성의 미, 장식미, 숭고

이상의 결과에서는 서로 대립되는 미적 범주들이 생과 사를 반복하며 시대별로 새로운 메이크업을 창출하고 있었다. 우미는 20세기 메이크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미적 범주로서 메이크업에서 여성성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대별로 유행한 메이크업에 따라 서로 다른 미적 범주가 적용되고 있었다. 20세기 전반에는 사회적 적합성의 미, 장식미, 숭고미, 낭만적인 미가 자주 등장하였고, 후반에는 그것들과 대립되는 유용성의 미, 구조미, 우미, 고전적인 미가 메이크업 미적 범주로 나타났다. 즉 20세기 전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장식을 많이 한 자극적인 메이크업에서 장식을 줄인 내추럴 메이크업으로 변화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21세기에는 내추럴한 기본 메이크업의 유행을 바탕으로 여러 미적 범주를 믹스한 다양한 메이크업이 공존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인간이 느끼는 미적 쾌감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같은 메이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서로 다른 미적 경험을 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인간의 중요한 미적

육구 층죽 방법인 메이크업의 미를 미적 범주로 분석함으로써 메이크업 미를 분석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메이크업의 미적 가치를 연구하는 기초 자료로서, 학문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세기의 각 시대별로 제시된 여배우의 사진이 한 시대의 메이크업 미적 범주를 분석하는 자료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연구범위로서 100년은 광대하기 때문에 20세기 시대별 메이크업 특징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결과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메이크업 미와 관련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를 세분화하고, 광범위한 자료 수집을 통해 보다 보편적인 결과를 얻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네 가지 미적 범주 쌍의 미학적 위상을 정립하는 일과, 이들 미적 범주 쌍을 다른 미적 대상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분석도구의 일반화를 꾀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20세기의 각 시대를 보다 세밀하게 연구하여 각 시대별로 나타난 다양한 하위 문화적 메이크업을 규명하는 연구도 흥미로울 것이다. 한편 의복과 메이크업에 대한 시대별 미적 범주 분석을 동시에 수행한다면 토털 패션 경향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맞추어 패션에 대한 총체적인 경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희숙, 이은임 (1996). 메이크업과 패션. 서울: 수문사, p. 107.
- 2) 위의 책, p. 135.
- 3) 제니퍼 크레이크 (2001). 패션의 얼굴. 정인희, 함연자, 정수진, 김경원 옮김. 서울: 도서출판 푸른솔, pp. 279-280.
- 4) 박윤심 (2000). 1950년대 영화 의상과 메이크업의 분석에 관한 연구 - 할리우드 영화 스타를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
- 5) 위의 책, p. 2.
- 6) 위의 책.
- 7) 니콜라우스 슈뢰더 (2001). 해냄 클래식 50 영화. 서울: 해냄출판사.
- 8) 멜빈 레이더. 버트람 제섭 (1987). 예술과 인간가치. 김광명 옮김. 이론과 실천, p. 133.
- 9) W. 타타르키비츠 (1999). 미학의 기본 개념사. 손효주 옮김. 서울: 도서출판 미술문화, pp. 191-192.
- 10) 위의 책, pp. 191-192.
- 11) 최수현 (1994). 복식의 미적 범주 - 르네상스 · 바로크 복식에 적용하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7.
- 12) W. 타타르키비츠. 앞의 책, p. 197.
- 13) 최수현. 앞의 책, p. 18.
- 14) W. 타타르키비츠. 앞의 책, p. 198.
- 15) 위의 책, pp. 198-240.
- 16) 위의 책, p. 200.
- 17) 위의 책, p. 200.
- 18) 위의 책, p. 206.
- 19) 위의 책, p. 207.
- 20) 위의 책, p. 206.
- 21) 위의 책, p. 213.
- 22) 위의 책, p. 214.
- 23) 위의 책, pp. 214-215.
- 24) 위의 책, p. 210.
- 25) 위의 책, p. 209.
- 26) 위의 책, p. 210.
- 27) 최수현. 앞의 책, p. 19.
- 28) W. 타타르키비츠. 앞의 책, pp. 222-224.
- 29) 위의 책, p. 240.
- 30) 최수현. 앞의 책, p. 26.
- 31) 현대 패션 100년 편찬위원회 (2002). 현대 패션 100년. 교문사, p. 62.
- 32) David Bond (2000). 20세기 패션 (개정판). 정현숙 옮김. 경춘사, p. 22.
- 33) 오인영, 김인숙 (2003). 1·2차 세계 대전이 서구 미용 문화에 미친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7), pp. 779-780.
- 34) 위의 책, pp. 780-781.
- 35) Theda Bara (1885-1955). Cleopatra, Salome 등에 출연.
- 36) 이화순, 황춘섭 (2002). 화장의 사회 · 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화장이미지와 자의식에 관한 연구. 복식, 52(8), p. 139.
- 37) 현대 패션 100년 편찬위원회. 앞의 책, p. 87.
- 38) David Bond. 앞의 책, p. 73.
- 39) Clara Bow (1905-1965). Beyond the rainbow (1921년작), Down to the sea in ships (1922년작) 등에 출연.
- 40) David Bond. 앞의 책, p. 91.
- 41) 김희숙, 이은임. 앞의 책, p. 70.
- 42) Mary Pickford (1893-1979). My Best Girl (1927년작) 등에 출연.



- 43) 현대 패션 100년 편찬위원회. 앞의 책, p. 114.
- 44) 오인영, 김인숙. 앞의 책, p. 784.
- 45) Greta Garbo (1905-1965). Queen Christina (1933년작), Anna Karenina (1935년작) 등에 출연.
- 46) Helen Chandler (1906-1998), Christopher String (1933년작), 드라큘라 (1931년작) 등에 출연.
- 47) Marlene Dietrich (1901-1992). Shanghai Experss (1932년작), The Devil is a Woman (1935년작) 등에 출연.
- 48) 김희숙, 이은임. 앞의 책, p. 78.
- 49) 현대 패션 100년 편찬위원회. 앞의 책, p. 143.
- 50) Ingrid Bergman (1915-1982). Casablanca (1942년작), For Whom The Bell Tolls (1943년작) 등에 출연.
- 51) 김희숙, 이은임. 앞의 책, p. 82.
- 52) Vivien Leigh (1913-1967). 애수 (1940년작) 등에 출연.
- 53) 김희숙, 이은임. 앞의 책, p. 84.
- 54) Audrey Hepburn (1929-1993). Roman Holiday (1953년작), War And Peace (1956년작) 등에 출연.
- 55) Marilyn Monroe (1926-1962). Gentlemen Prefer Blondes (1953년작), The Seven Year Itch (1955년작) 등에 출연.
- 56) Grace Kelly (1929-1982). 이창 (1954년작) 등에 출연.
- 57) 현대 패션 100년 편찬위원회. 앞의 책, p. 211.
- 58) Brigitte Bardot (1934년 출생). Contempt (1964년작), Sprints of The Dead (1969년작) 등에 출연.
- 59) 김희숙, 이은임. 앞의 책, p. 90.
- 60) Claudia Cardinale (1938년 출생). 표범 (1962년작), The Pink Panther (1963년작) 등에 출연.
- 61) 김희숙, 이은임. 앞의 책, p. 93.
- 62) 현대 패션 100년 편찬위원회. 앞의 책, p. 236.
- 63) 김희숙, 이은임. 앞의 책, p. 93.
- 64) Meryl Streep (1949년 출생). The Deer Hunter (1978년작) 등에 출연.
- 65) Ali MacGraw (1938년 출생). 러브스토리 (1972년작) 등에 출연.
- 66) Olivia Newton-John (1948년 출생). 그리스 (1978년작) 등에 출연.
- 67) 현대 패션 100년 편찬위원회. 앞의 책, p. 269.
- 68) Cher (1946년 출생). Moonstruck (1987년작) 등에 출연.
- 69) Sophie Marceau (1966년 출생). La Boum 1 (1980년작), La Boum 2 (1982년작) 등에 출연.
- 70) Meg Ryan (1961년 출생). 해리가 샬리를 만났을 때 (1989년작) 등에 출연.
- 71) 한미경, 은영자 (2001). 1990년대의 히피패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9(2), p. 193.
- 72) Demi Moore (1962년 출생). Ghost (1990년작), Scarlet Letter (1995년작) 등에 출연.
- 73) Reese Witherspoon (1976년 출생).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 (1999년작), 금발이 너무해 (2001년작) 등에 출연.
- 74) Julia Roberts (1967년 출생). 귀여운 여인 (1990년작), 노팅힐 (1999년작) 등에 출연.
- 75) Gwyneth Paltrow (1972년 출생). 위대한 유산 (1998년작) 등에 출연.
- 76) Winona Ryder (1971년 출생). Girl, Interrupted (1999년작), Bram Stocker's Dracula (1992년작) 등에 출연.
- 77) 이은영 (1998). 복식의장학 (개정판). 서울: 교문사. p. 21.